

일본 환경 규제 소식

2009년 4월부터 개정된 에너지 절약법 시행

에너지 절약법이란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은 1979년 석유 파동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에너지 절약법 내용을 살펴보면, 연료·열·가스·전기 등 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는 공장 및 사업장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원유 환산치)을 정부에 제출해서 에너지 관리 공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3,000kℓ 이상일 경우 제1종 에너지 관리 공장, 1,500kℓ 이상일 경우 제2종 에너지 관리 공장으로 지정된다. 에너지 관리 지정공장은 에너지 관리자나 에너지 관리원을 선임하고 에너지 사용 상황 등의 정기보고서나 중장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비마다 상세한 현장 에너지 관리를 공장 및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009년 개정 포인트

① 지정기준 변경 : 공장·사업장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에너지 관리 대상 지정 기준이 기업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 전체(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등)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원유 환산치)이 합계 1,500kℓ 이상인 경우 에너지사용량을 기업단위로 정부에 보고해서 에너지 관리대상(특정 사업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즉 [그림 1]과 같이 기업전체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2009년4월~2010년 3월)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1,500kℓ 이상인 경우 에너지 사용상황 신청서를 2010년 4월 이후 관할 경제산업국에 신청해야 한다. 특정 사업자 지정 후 정기보고서, 중장기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도 공장·사업장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500kℓ 이상일 경우로 추측되는 사업자를 [표 1]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② 규제대상 확대 : 프랜차이즈 체인도 에너지 관리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사업자(가맹점)를 포함하는 기업 전체의 연간 합계 에너지사용량(원유환산치)이 1,500kℓ 이상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가 그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신청해서 특정 연쇄화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 관리총괄자 및 에너지 관리기획 추진자 선임

특정사업자 및 특정 연쇄화 사업자는 에너지 관리총괄자(기업의 사업경영에 대해 발언권을 보유하는 이사 수준 담당자)와 에너지 관리기획 추진자(에너지 관리총괄자를 실무 면에서 보좌하는 담당자)를 각각 1명 선임하여 기업 전체의 에너지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그림 1] 에너지 사용 특정사업자 지정



[표 1]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500kℓ 이상인 사업자 예시

소매정보	약 3만㎡ 이상	편의점	30~40점포 이상
오피스/사무소	약 600만kWh/년 이상	패스트푸드	25점포 이상
호텔	객실수 300~400 이상	패밀리레스토랑	15점포 이상
병원	병상수 500~600 이상	피트니스클럽	8점포 이상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기업의 대응 사례

주요 편의점 사업자는 개정 에너지 절약법의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Seven Eleven은 2008년 말부터 신규 점포에서 소비전력이 형광등의 반 정도에 불과한 LED간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점포 내 조명에도 고효율 형광등을 사용하고, 빛을 반사하는 타일을 바닥재로 사용해서 형광등의 개수를 줄이려하고 있다. Lawson도 올해 6월부터 간판과 점포 내 조명을 순차적으로 LED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매점내의 온도나 밝기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상 파급 효과 - 일본 환경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 본격 확대

개정 에너지 절약법 시행에 따라 2009년 중 일본의 환경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LED조명과 같은 환경 관련 제품 제조사는 금번 개정 에너지 절약법 시행을 절호의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관련 제품의 개발·판매를 추진 중이다. Hitachi Lighting은 올해 4월부터 고효율 형광등 양산을 결정하고, 도쿄 소재 공장에 10억 엔을 투자해서 제조설비를 도입했다. 이 기업은 LED조명보다 고효율 형광등의 실용성이 높다고 보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조기기 제조업체인 Sanyo는 공조기거나 냉장고를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Eco Store System」을 개발, 이미 300점포에 납품했다. OKI 전기공업에서는 인터넷과 센서를 이용해서 점포별 전력 사용량을 원격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소프트웨어 기간임대 방식(ASP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에너지 절약법 및 온난화 대책을 경영과제로 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환경보고서나 환경회계가 IR정보로서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상 정리, 대책 수립, 경영 지표화, F/U 등의 수



LED조명이 설치된 편의점

요가 높아져 환경경영 컨설팅 업체에게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일본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정부가 앞으로 환경규제 정책을 더욱더 내세울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환경 관련 해외기업들의 일본시장 진입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K>